

포스트모던시대 글쓰기 침삭의 대화성

- 『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교수자 침삭을 중심으로』 -

박준범,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기호*

|| 차례 ||

1. 학습자 ‘반응’에 담긴 침삭의 對話性
2. 침삭논평과 학생 반응이 이룬 연구 성과와 특징
3. 본 박사 논문의 의의와 한계

1. 학습자 ‘반응’에 담긴 침삭의 對話性

반응[reaction response, 反應]은 화학이나 생체심리학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히 생체심리학에서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흥분은 생체 등의 내부에 생긴 상태의 변화이고, 반응은 흥분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활동이다.’로 설명한다. 생체심리학의 ‘반응’ 정의를 참조하면 반응은 자극의 단순한 외면적 결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적어도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첫 단계는 자극에 대한 내면적 변화 과정 즉 화학적 변화 혹은 생체 내부의 상태 변화 과정이다. 둘째 단계는 변화 과정에 따른 외면적 활동이다. 따라서 반응은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변화와 외면적 결과 이 둘의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박준범 박사의 논문 제목과 연구 목적에 제시된 ‘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 연구’에 대해 자극과 반응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교수자의 침삭논평은 자극에 해당한다. 그리고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은 말 그대로 학습자의 반응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반응에는 두 가지의 과정 즉, 학습자 내면의 변화 과정과 변화의 결과로서의 학생의 외면적 활동이 포함된다. 연구자가 ‘반응’의 개념어를 사용한 데는 학생의 외면적 활동을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변화의 과정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글쓰기 교육자로서, 그리고 글쓰기 연구자로서 박준범 박사가 자극에 대해 외적 결과반응(結果反應)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내적 변화반응(變化反應)에 주목한 것은 글쓰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다. 글쓰기 연구자들에 따르면 글쓰기는 대화의 산물이다. 필자가 그의 내포 독자와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 글을 쓰면 이것을 표현주의 글이라 한다. 필자가 교실 내의 동료, 강의자, 혹은 교실 밖의 독자 등과 대화를 하며 이를 통해 글을 쓰면 이것을 사회구성주의 글이라고 본다. 필자가 비판적 의식화 수준을 성취하는 대화를 통해 글을 쓰면 이것을 사람들은 비판적 혹은 해방적 글쓰기라고 한다. 필자가 절대적 지식의 권력을 해체하고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대화적 지식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을 해체적 글쓰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글쓰기 교육의 역사는 대화성을 발견하기 위한 역사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박준범 박사가 침삭논평과 학생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한 것은 포스트모던 혹은 해체의 대화성(對話性)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박준범 박사가 수행한 ‘침삭논평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대화침삭(對話添劑)’이라 명명해도 좋을 것 같다.

박준범 박사가 논문 전반을 통해 보여준 ‘대화침삭’의 실체는 교실 내

강의자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학생이 쓴 초고 글이 강의자에게 제출된 것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1차 대화이다. 강의자가 초고를 읽고 피드백의 절차를 밟아서 이 원고를 되돌려 준 것은 강의자와 학생 사이의 2차 대화이다. 피드백 원고를 받은 학생이 강의자의 수정 메시지를 수용할지, 거절할지, 해당 원고 내용을 삭제할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 반영하는 것은 강의자와 학생 사이의 3차 대화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2차 원고를 강의자가 다시 보아 무엇이 수용되고 무엇이 거부되고 원고의 어느 부분이 삭제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강의자와 학생 사이의 4차 대화이다. 첨삭과 피드백이라는 표면적 대화 이면에 보다 디테일한 심층 대화가 강의자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층적·심층적 첨삭대화를 두고 포스트모던적 대화주에 근접한 것으로 혹은 절대지식을 주입하는 권위적 첨삭에 반하는 해체적 첨삭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박준범 박사가 보여준 첨삭은 ‘대화글쓰기’와 짝이 되는 ‘대화첨삭’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소 거칠고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준범 박사의 논문이 ‘대화첨삭’의 새로운 가능성을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 할 만하고 그러하기에 매우 높은 창의성 점수를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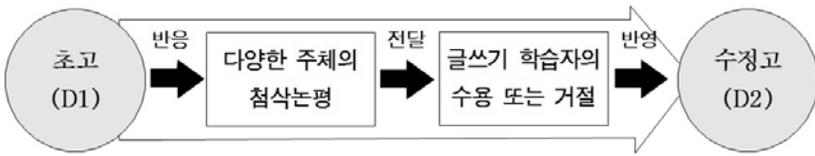
2. 첨삭논평과 학생 반응이 이룬 연구 성과와 특징

박준범 박사의 논문을 요약하면 ‘교수자의 첨삭논평에 대한 학생들의 내적·외적 반응’이다. 진행된 연구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초고를 써오게 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초고를 대상으로 강의자가 스트라우브(R. Straub)의 것을 참조하여 초점(수사적 맥락, 조직, 내용, 표현의 정확성)과 방식(닫힌 질문, 열린 질문, 교정, 지시,

충고/제안, 비판, 완화된 비판, 독자반응, 칭찬)에 따른 첨삭논평을 한다. 3단계에서는 면대면 혹은 집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첨삭논평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4단계에서는 초고를 쓴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원고에 반영을 하는데 그 때 피드백 내용에 대해 수용, 거절, 삭제의 판단을 한다. 5단계에서는 수정 보완된 원고를 다시 제출 받은 강의자가 학생들의 첨삭논평에 대한 수용, 거절, 삭제의 판단 양상을 확인한다. 6단계에서는 4단계의 작업이 있는 후 2주 뒤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게 하고 이를 제출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한 후 박준범 박사는 두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한다. 하나는 앞의 5단계에서 확인된 학생의 수용, 거절, 삭제의 양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앞의 6단계에서 제출된 학생들의 글들을 1단계에서 작성된 학생들의 글과 4단계에서 작성된 학생들의 글과 비교하고 학생들의 수용, 거절, 삭제의 인지적·심리적 판단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14년 1학기 와 2학기, 2015년 1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했던 교실의 학생들이다. 2014년 1학기에는 문화인류학과 학생 47명이며, 2학기에는 인문자율전공학부 학생 32명이고, 2015년 1학기에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 46명으로 총 125명이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결정하면서 남녀 변수, 학년 변수, 전공 간 변수를 연구 목적에 포함하여 설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들을 연구 목적에 포함하여 설계하였다면 본 연구의 성과들은 무척 풍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만큼 연구의 의의도 더 클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설계한 첨삭 피드백의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 는 하지만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해 보인 첨삭 피드백의 그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실시한 첨삭논평은 Straub(2000: 75-84)가 제시한 초점(focus)과 방식(mode)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초점은 수사적 맥락(context), 내용(content), 조직(organization), 표현의 정확성(correctness)이다. 다음으로 방식은 ‘닫힌 질문(closed question)’, ‘열린 질문(open question)’, ‘교정(corrective)’, ‘지시(command)’, ‘충고와 제언(advice)’, ‘비판(criticism)’, ‘완화된 비판(qualified criticism)’, ‘독자반응(reflective statement)’, ‘칭찬(praise)’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R.Straub의 첨삭 범주를 적용한 것의 내재적 이유와 이것이 원래 사용되었던 맥락을 제시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가 R.Straub의 첨삭논평 범주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알기가 힘들다. 방법을 원용하여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방법이 어떠한 지적·사회적 배경을 통해 나왔는지 확인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원용할 때 나타나는 의미는 물론 한계 또한 무엇인지 보여야 한다. 말하자면 물자체 혹은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연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연구의 성과도 그 색안경의 전제 안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에 방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방법의 제한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설계된 연구 과정,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자는 첫째 교수 첨삭논평의 제공양상에 관한 데이터를 도출한다.(2장) 둘째 교수 첨삭논평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데이터로 생산한다.(3장) 셋째 교수 첨삭논평과 학습자 반응 양상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반응 양상이

글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4장) 세 가지 주요 작업을 수행한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첨삭논평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 글쓰기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강의자와 학생 사이에 진행된 쌍방향적 대화 첨삭이 ‘내적 변화로서 글쓰기 능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자가 확인한 긍정적 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적 맥락’ 영역에서는 글쓰기 학습자들이 두 번째 글쓰기의 초고(W2-D1)에서 주어진 논제에 대한 글을 쓴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논제와 부합성에 대한 교수자의 첨삭논평 제공은 글쓰기 학습자의 수용 반응에 있어서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다음 글쓰기까지 강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글쓰기 학습자에게 처음으로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경우 논제와의 부합성에 대한 첨삭논평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영역에서는 글의 단계적 구성에 대한 글쓰기 학습자의 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비록 글의 응집성과 관련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지속적인 첨삭논평의 제공이 필요하였으나 글의 단계적 구성에 대한 첨삭논평은 글쓰기 학습자에게 4-5개 정도의 문단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글쓰기의 초고에 대한 첨삭논평을 제공하는 교수자는 특히 ‘수사적 맥락’과 ‘조직’에 관한 첨삭논평을 제공하여 글쓰기 학습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두 번째 글쓰기 이후부터 이와 관련한 항목의 쓰기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에 따르면 ‘수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첨삭은 학습자의 수용 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에서 이루어진 첨삭이 수용의 반응에 강한 영

향을 미치고 그것이 글의 단계적 구성 능력에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된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글쓰기 첨삭 작업 중 ‘수사적 맥락’과 ‘글의 조직’에 관한 첨삭을 할 때는 중요한 참조 틀이 된다. 내용의 영역과 표현의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수용 반응이 글쓰기 능력의 향상과 그다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또한 글쓰기 첨삭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참고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3. 본 박사 논문의 의의와 한계

본 논문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교육자가 제공한 첨삭논평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과 이러한 수용과 거절의 반응이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것으로 대학 글쓰기 첨삭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선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첫째 선행 연구에 대한 논의가 매우 충실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첨삭 피드백과 첨삭논평과 관련된 논문들을 모두 검색하여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성 즉, 퇴고, 교정, 수정, 첨삭, 논평, 피드백, 고쳐 쓰기, 재고 및 조정하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강의자가 글쓰기 학습자에게 제공한 코멘트의 의미로 <첨삭논평>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여 쓴 것도 의미가 있다. 셋째 교수 첨삭논평의 제공 양상(2장)과 학습자의 반응 양상(3장)을 초점과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험적, 실증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점도 높이 살만하다. 넷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반응 양상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4장)을 수사적 맥락, 조직, 내용, 표현의 정확성이라는 초점의 영역에서 살펴본

것도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은 강의자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초고에 대한 첨삭논평, 수정한 원고에 대한 첨삭논평, 최종 원고에 대한 첨삭논평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가 데이터에 의한 분석 없이 첨삭 논평을 한 현장 강의자의 생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지 않으나 하는 점이다. 첨삭논평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언으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다수 첨삭을 해 본 현장 강의자라면 특별히 색다를 게 없는 것이기도 하다. 글쓰기 현장을 고려할 때 첨삭 논평을 충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도 본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화첨삭(對話添削)’ 교육 방안을 창안하는 것을 핵심 연구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